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홈](#) > [매거진](#) > [전체보기](#) ▾

컬처 | 리뷰

21세기의 바우하우스 운동을 꿈꾼다_한샘DBEW공모전

2003-11-05

The 3rd DBEW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003

출품 부문 | 건축설계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가구디자인

주최 | 한샘

주제 | 한 자녀 가정을 위한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DBEW for the One Child Family)

목적 | 1. 홈인테리어디자인 분야의 베스트셀러디자인 개발

2. 홈인테리어디자인분야의 전문인 발굴

3. 아시아의 정서, 생활양식, 문화에 맞는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의 개념제시

취재/인터뷰 | 김미진기자 (nowhere21@yoondesign.co.kr)

42,000 달러의 상금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학계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국내외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한샘DBEW 국제디자인공모전이 지난 10월 17일, 수상자들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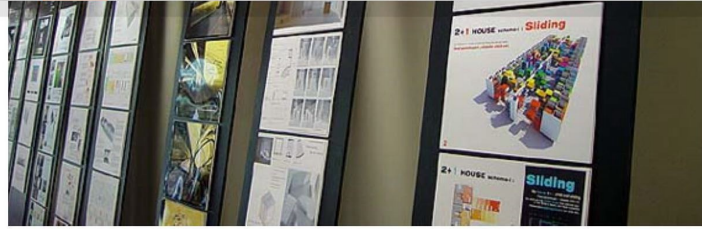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맛별이 한 자녀 가정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공모전 과제로 제시한 결과, 44개국에서 305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한샘DBEW공모전은 한국, 중국, 일본의 스타일 중에서 건축, 인테리어, 가구디자인 3개 분야에 걸쳐 작품을 모집하였으며, 수상자에게는 한샘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알레산드로 멘디니를 필두로 중국 실내건축협회장 장세예, 그리고 서울대 김석철 교수가 참가해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중국과 일본의 관계자들도 참가해 국제적 행사로 자리잡은 모습이었다.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21세기의 바우하우스 운동을 시작한다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도시화는 전세계가 겪은 도시화의 최종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를 완성한 일본과 현재 과도기적 단계인 한국 그리고 거대한 규모로 진행중인 중국...

이 세 나라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물량적 공급은 성공했지만 창조적 디자인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칭화대와 미 하버드대학 교수들의 공동연구에서 2001년부터 DBEW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 시작되었다. 즉, 서양이 이끌어 온 현대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양과 서양을 넘어선 디자인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한중일 그리고 동서양의 디자이너 모두가 참여하여 창조적인 21세기의 디자인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매회 40여 개 나라에서 400여 점의 작품이 응모하고 15작품이 입상작으로 뽑혀 그 중 일부는 실사설계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샘DBEW 공모전은 인류가 지난 세기에 겪었던 엄청난 도시 집중화 그에 따른 거주환경의 문제들이 지식정보사회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그 디자인 솔루션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21세기의 바우하우스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왜 Design Beyond East and West인가?

19세기 이전까지 동서양은 각자 독자적 발전을 추구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서양이 세계문명을 주도하면서 동양은 서양을 추종하기 시작했다.

지난 100년간 아시아는 서양의 성공과 실패를 뒤따라 갔다.

서양을 따라 가기만 한 일본과 한국이 실패한 상황에서 중국은 문명적 자산,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명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서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서양은 물론 일본과 한국의 경우와도 달리 새로운 두 문명을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도시화를 맞는 중국은 대량생산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했던 서양의 도시화와 구별되는 특성화된 논리를 필요로 한다.

21세기는 새로운 지식정보사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종도 각자의 길도 아닌 소통과 융합의 시기를 기대한다.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알레산드로 멘디니
Alessandro Mendini

Profiles

1931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
이탈리아 디자인/건축 집지인 《Casabella》, 《Modo》, 《Domus》의 편집장 역임
오브제, 가구, 인테리어, 건축 등 디자인 전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디자인 거장
알레시, 필립스, 스와로브스키, 스와치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업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했으며
아시아를 포함한 수많은 제조업체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 아이덴티티 전략 등을 제공하는 아티스틱(artistic) 컨설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1989년 Atelier Mendini를 설립



“어느 해보다 중국디자이너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해였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문제와
도시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친환경적 건축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어떻게 현대화 시킬 것인가가
중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장세에 張世禮

Profiles

중국건축학회 실내디자인협회(CIID) 회장으로 중앙공예미술학원 부원장 역임
현재 환경예술연구 디자인 소장이자 Tsinghua 대학의 예술분과 교수로 재직
중국을 대표하는 1세대 실내건축 디자이너로, 중국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건축양식과 실내 디자인 연구에 주력해왔다.
외국 문물을 획일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전통을 근간으로 새롭게 적용시킬 것을 주장해 온 그는
외교부 소속 마카오 특파원 공용건물 연회실, 중국 그레이트 호텔, 프랑스 중국 대사관 접객실, 독일의 중국 대사관 등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했다.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Profiles

1966년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1973년 김석철 건축연구소(현 아키텍 건축도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명지대 건축대학장, 베니스 대학, 콜롬비아 대학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예술의 전당,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해인사 신불교단지 등이 있다.



Interview

대상 수상한 Zhang Yue (중국 청화대) 교수

- 1996, 청화대 건축학 학사
-1999, 동대학원 공학석사 architectural history and theory 전공
-2002, 동대학원 공학박사 city planning and city design 전공
-2003, 청화대 건축학 교수로 재직
그밖에 청화대 건축학과 학생들
Xu Jie, Zheng Yue Yuan, Cheng Xiao Xi, Tao Lei, Feng Jie

정글 : 한샘 DBEW 국제공모전에 응모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번 여름 청화대에서 열린 공모전 관련 행사에서 짐 교수가 강연을 가졌고, 이를 통해 한샘 DBEW 국제공모전에 한번 참가해보고자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글 : 수상 소감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대상 수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정글 : 이번 프로젝트 진행 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다시피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적인 한계였습니다.

만약 3일정도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팀웍은 매우 즐겁고 효과적이었지요

정글 : 한 자녀가 고립된 공간으로부터 비롯된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웃과 소통하는 개방된 공간을 연출하였는데, '시각적 미'보다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삶의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디.

구체적으로 중국 전통의 주거형태가 반영된 것은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공모전 심사위원에게 두 가지 도안을 출품하였습니다.

둘 다 '2+1 house'라는 메인 아이디어의 컨셉을 갖고 이뤄진 디자인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은 상이한 것들이죠.

'sliding' 도안은 조금 더 이상적인 모델이고 더 많은 선택과 더욱 독립적인 아이들의 공간을 갖도록 하고 있죠.

'family+4' 도안의 경우는 중국의 4각형 '안뜰'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에서 해결점을 구하고 있는 더욱 중국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4가구 4명의 어린이를 위한 공공 거실을 만듦으로써 고전적인 가족간의 관계를 추구하였습니다.

제목에서도 나타나있듯이 두 가지 도안은 단지 가족들을 3 to 2+1(3에서 2+1으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가족들간에 보다 사교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2+1"의 분리와 개축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은 조화로운 이웃관계를 형성합니다.

정글 : 공모전 결과 이후, 대상 수상작은 향후 어떻게 실현되는지요?

한샘은 공모전 수상팀에게 벤처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가 단순히 출품작 보고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화 된 건축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작품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건물이 지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Soft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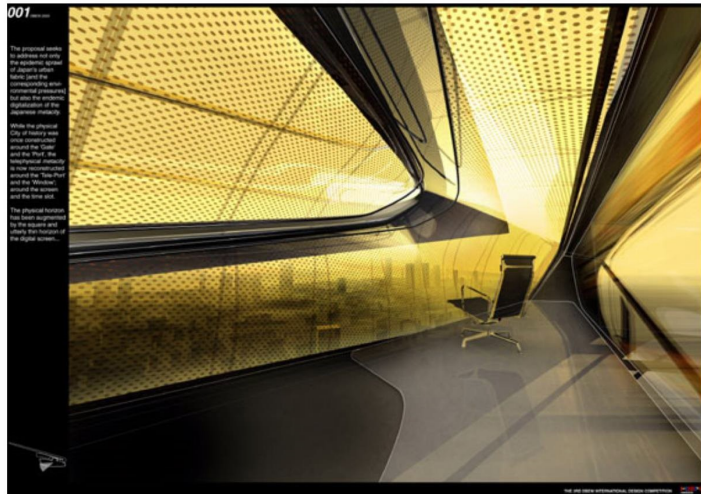
Stephanie Forsythe, Macallen Todd(Unted Kingdom)

인테리어 개념을 확장해 새로운 공간을 연출한 작품이다. 기본적인 평면에 산정하지 않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근본적인 모색하고 있다. 즉, 작가는 주어진 공간을 장식하는 것보다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예술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심리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고 있다.

목조재질,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 사이를 반투명종이 종이로 구분하여 공간을 연출한 일본의 전통적 주거양식을 현대기술로 표현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영역을 확장하고 동서양을 넘어서 디자인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no title

Ben Addy(Canada, Forsythe + MacAllen Design)

세계최대의 공업국가인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테크놀로지를 주거환경에 활용한 아이디어이다.

금속이나 유리 소재를 사용하고 모듈이 연결하여 확장된 형태를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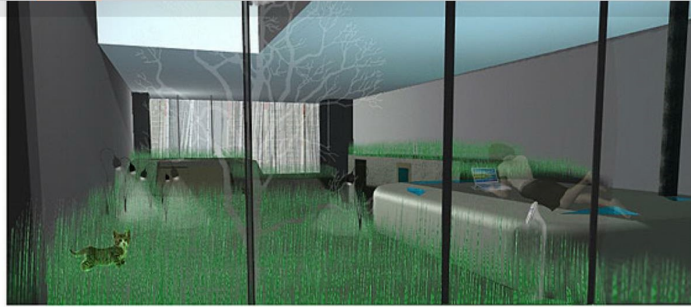
구조적으로 여러 방식을 통해 공간을 크고 작게 연출했다. 이렇듯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디자인은 현대인에게 적합한 설계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고갈시대에 태양력이나 중력을 이용하고자 한 시도가 돋보이며, 광선과 곡선의 리듬감은 현대 디자인의 일면을 보여준다.

아쉬운 것은 실생활에 활용방안이 부재한 점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The grass House By 박찬혁(Korea, Vide)

As an extension to the above observations, this theoretical project seeks to express through six fragmented scripts from a dialogue, as individual framework of thoughts to be ranged with a painting space ("Digitalized Epitaphic Space"), using narrative and rituals of design ("Kitchen Culture"), as a technique to draw upon connecting associations, as a correction against the physical constraint of the design specification (typical house).

As a potential "post-antropological space" study of a typical family house into a "dream-house".

Dreaming space | Media ("Digitalized Space")
 Using the judges as clients, to be judged upon helps to further this line of observation; to phenomenally bring a sense of awareness into the construction of a mental spatial space (2-D painting), curiously it could be viewed as an entrapment for the judges (viewer), as the judges are necessarily drawn as the users within the "one child family" house space. Where individual's awareness of [one] self in an imagined space is being curving (to have design) indulged by the painter (architect), requiring the client to seek association and awareness through individual's psychological phenomena navigation of interior space into a material dimension of space, only distinctive to one but are of association to the others, one which could argumentatively be than called a "home".

The execution through painting space is a sound critique against design, construction and cybernetic urban space (for a mediator of globalization, which distinctively may be our ironic parallel of mass production/consumption of institutionalized space (house), thus reducing us into mere spectators of space rather than true occupants of space (home)).

First we must come to terms that the phenomenological effects of globalization are part of the process of racial urbanization, and hybridity, both states imposed and physical self-entangled place. But what is not apparent within these changes are the "other self": singles, divorce, gays, lesbian; parents and the less fortunate who have no access to the new age!

As an extension of this, this theoretical driven design intends to explore narratively the role of a "home" (place) within such a global urban-cultural landscape (client) and its potentiality for developing a spatial model of transition, linking the ideal of "self" back to "place" and vice-versa.

Requiem for a Dream
 How about your epitaphic study? The one who has died epitaphic study? National these could be a space? Drawing of more through circulation.

Art Critic Point
 Point by Yehoshua, San Francisco

spatial analysis of
 "NO IS MISSING WHO?"

And YOU? Love! emotional design (emotional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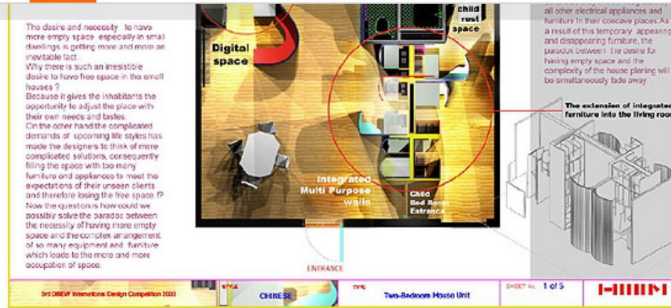
version sheet 03

Wei Yap Ooi(Singapore, University of Melbourne)

The material of the Space-shifter is a paper tube. This material was used as the structural element for temporary habitats by Japanese architect, but for this 1st house we use this tube as an interior element of Korean housing for 21st century, may be also for an Asian housing...



매거진 공모전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Merati Amirali(Iran. Azad university-Central faculty of Art&Architecture)



박경조(Korea. Presketch)



모든기사 보기 | 이메일 보내기

당신을 위한 정글매거진

https://www.jungle.co.kr/magazine/1885

9/10

PRIORART_0000674



매거진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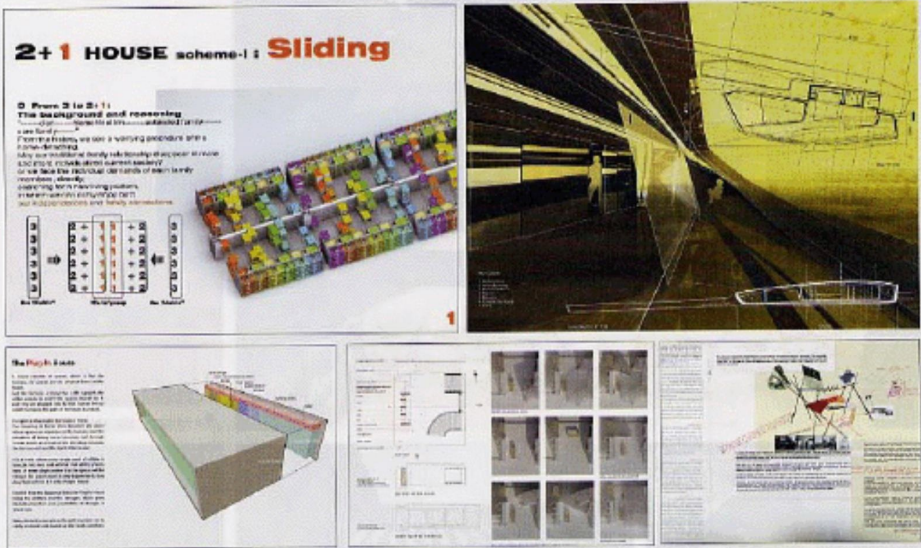
전시행사

갤러리

커뮤니티

하우징 투어

•DBEW(Design Beyond East & West)2003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 3인 가족의 집, 건축과 인테리어

세계적 디자인콩쿨 이 린 'DBEW(Design Beyond East & West)2003' 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44개국에서 응모한 303작품중 대상과 두개의 금상과 열두 개의 은상이 선정되었다.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 디자인 이라는 주제아래 3인 가족의 생활을 담은 한국, 중국, 일본형의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다룬 뜻있는 이벤트였다.

글 : 사진_김세형(명지대 건축대학원), 이기환(건축도시연구개발)

18세기까지 동양과 서양은 따로 살아왔다. 산업혁명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서양문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양은 서양문명에 휩쓸렸다.

동양이 서양문명의 흐름을 따라가던 지난 100년은 대가족제가 붕괴되고 핵가족이 등장한 도시화의 세기이기도 하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급격히 이동해 간 시기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 산업사회의 저지정보사회의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하면서 동서양간의 교역보다 동서양 각국에서의 교역과 교류가 더 커지면서 동양과 서양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깊어지고 있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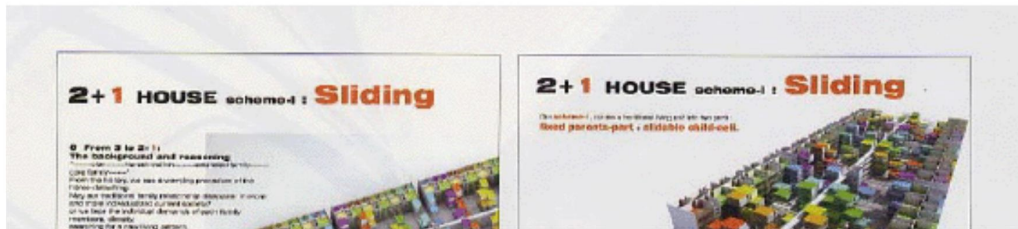
이러한 면의 와중에 부재한 3인 가족의 건축과 인테리어의 한

국의, 중국의, 일본의 해답을 담은 DBEW 2003의 소주제는 디지털 문화의 현대적, 컴퓨팅, 크리에이티브 잇츠들이었다.

주제, 부제, 소주제 등이 이룬의 여지가 많은 것들이어서 심사된 주제와 부제와 소주제에 대한 토론을 우선하였다.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 이라는 말은 동양과 서양의 전통과 경제성의 바탕 위에 서로의 문명과 오늘의 상황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서양의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동양의 건축과 디자인에 참여하고 동양의 작가들이 서양의 건축과 디자인을 하는 일 말고도 서로가 오늘의 상황 속에 하나가 되는 작업이 바로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무제인 한국적, 중국적, 일본적이라는 말은 각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이며 건축에서는 안에서 밖으로 전개

132_www.jutech.co.kr



1 2

3 4

2+1 HOUSE scheme-1 : Sliding

2+1 HOUSE scheme-1 : Sliding

2+1 HOUSE scheme-1 : Sliding

2+1 HOUSE scheme-1 : Sliding

대상을 수상한 응급처 주거형식으로 제안된 3+1.

있으며 어떻게 디자인하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일로서 이들의 심사기준이 타듯하였다. 벨디니선생과 나는 1회때부터 참여하였지만 1회심사위원이던 이소자씨선생이 추천한 세지마선생과 중국인테리이 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하대하의 장시리에 교수는 처음 참가하는 한이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형 주거형식으로 제안된 '3+1' 대상 등 15작품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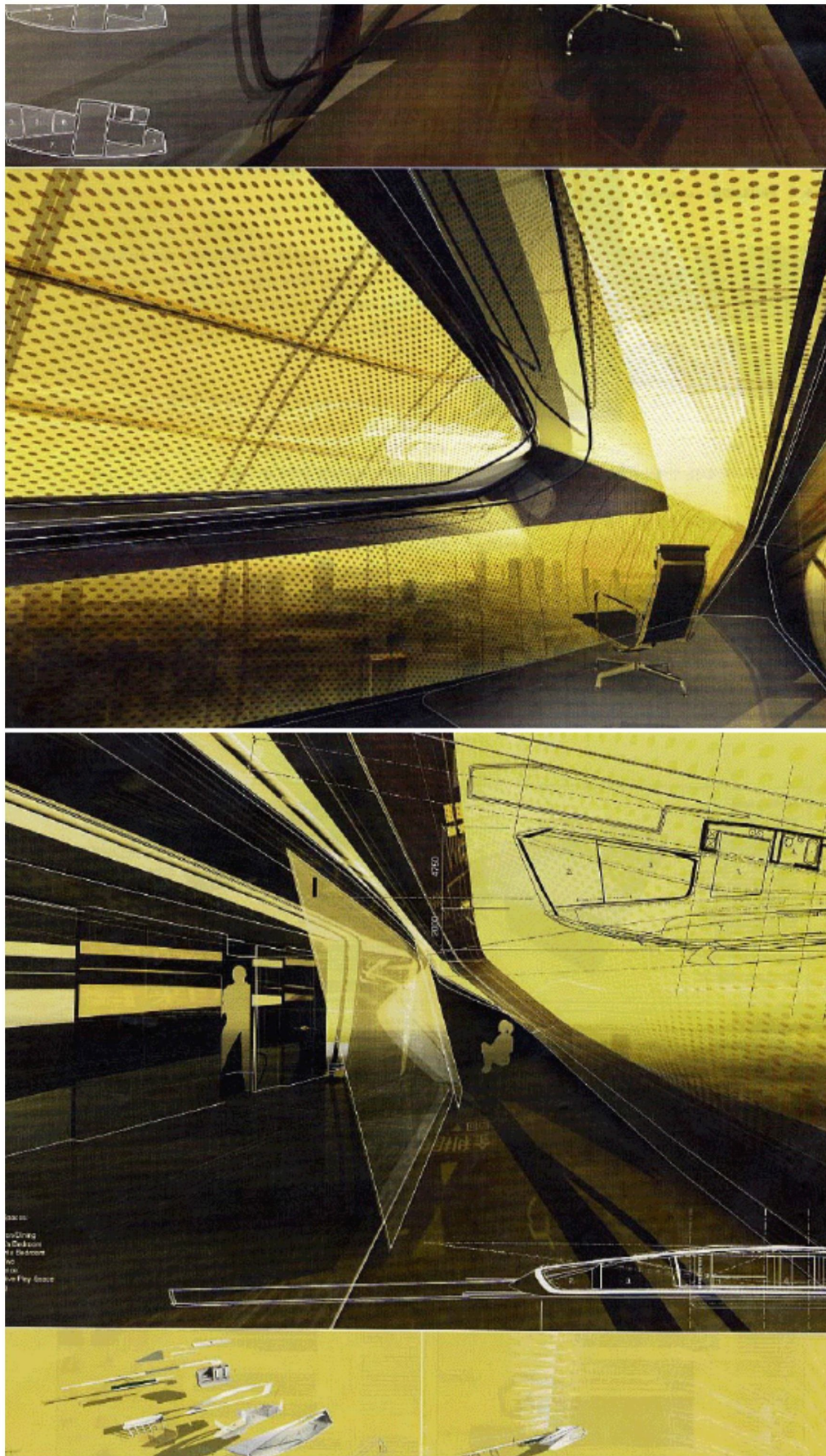
첫 날은 오전 네내 둘러보고 점심시간에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오후에 심사위원이 각각 15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두 심사위원이상의 추천을 받은 작품을 최종심사에 올리기로 하였다. 첫날 모두 25 작품이 최종심사 대상으로 추천되었다. 아침 이용자에 시작된 첫날 심사는 저녁 이섯시 되어서 끝났다. 점심도 시간을 아껴 도시락으로 든었다. 시시하게 된 심사에서 나중에는 서약기도 어려운 만큼 피곤했지만 303개의 서로 다른 제안을 감상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다.

다음날 25작품중 도본을 통해 이렇지 않게 수상작 15작품을 뽑을 수 있었으나 대상과 금상을 뽑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다. 대상과 금상은 1회, 2회의 수상작과 비교될 것이고, 앞으로의 용모에도 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디자인의 뛰어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주거

주책지널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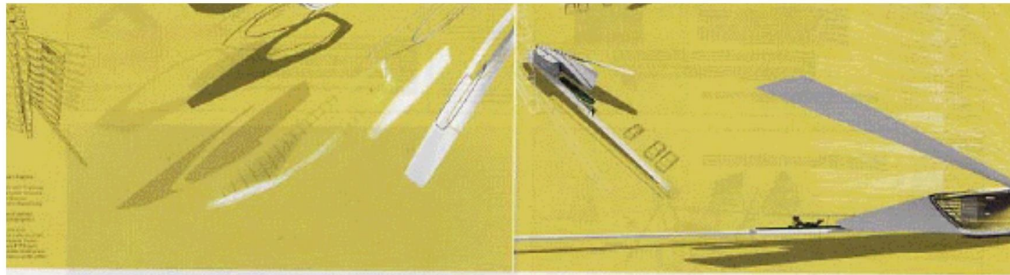
https://web.archive.org/web/20040611095214/http://www.hanssemcompe.com/english/artc/imageview.asp?image=jutech_2.gif&idx=55



https://web.archive.org/web/20040611095214/http://www.hanssemcompe.com/english/artc/imageview.asp?image=jutech_2.gif&idx=55

3/5

PRIORART_0000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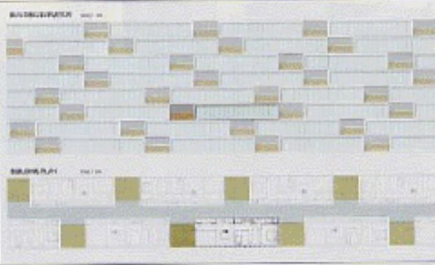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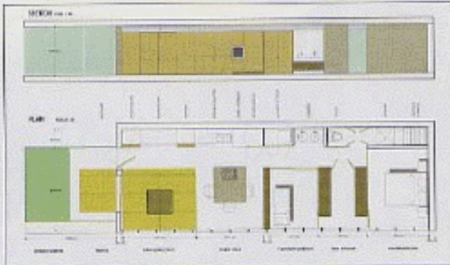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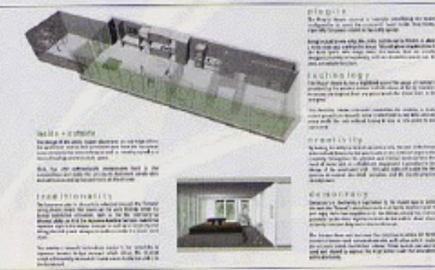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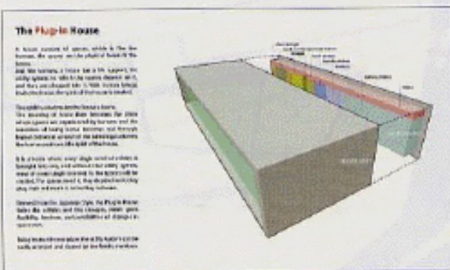
▲은상을 수상한 영국 건축가 에디 벤(Arady Ben)의 작품.

의 해학과 제안된 디자인이 모범이 될 만한 안이어야 했다. 모건 중에 었다섯 작품중 다섯 작품을 최종주제로 선정하였다. 심사후 중국과 일본에서 온 네 가지사 기사들과의 회견이 준비되어 있어 시들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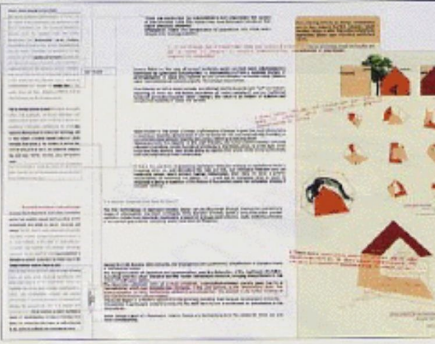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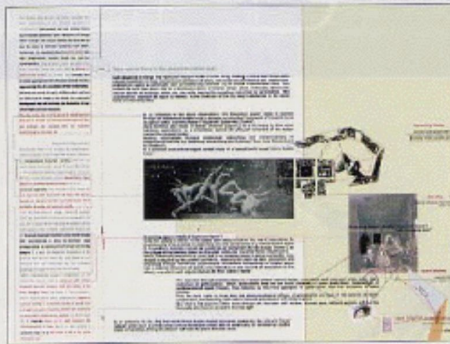
대상은 어렵지 않게 결정되었다. 중국형 주거형식으로 제안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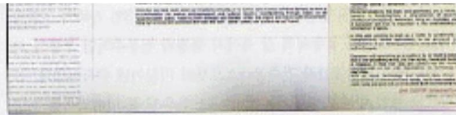
31'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1차년 3인 가족의 생활행식을 내부공간과 공동체적 삶 속에서 북경의 전통주거인 후풍과 사합원주택의 도시공간과 건축공간으로부터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금상으로 뽑힌 일본형 인테리어인 '소프트하우스'은 인터리어를 꾸밈의 단계에서 장작의 단계로 끌어올린 독창적인 작품이었다. 소주제

주목저널_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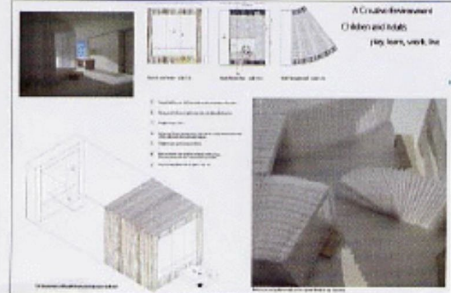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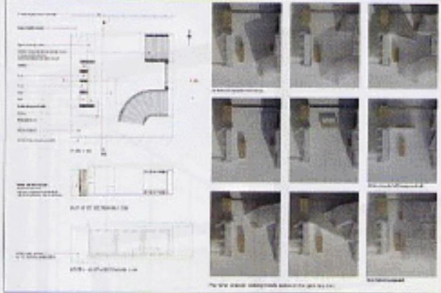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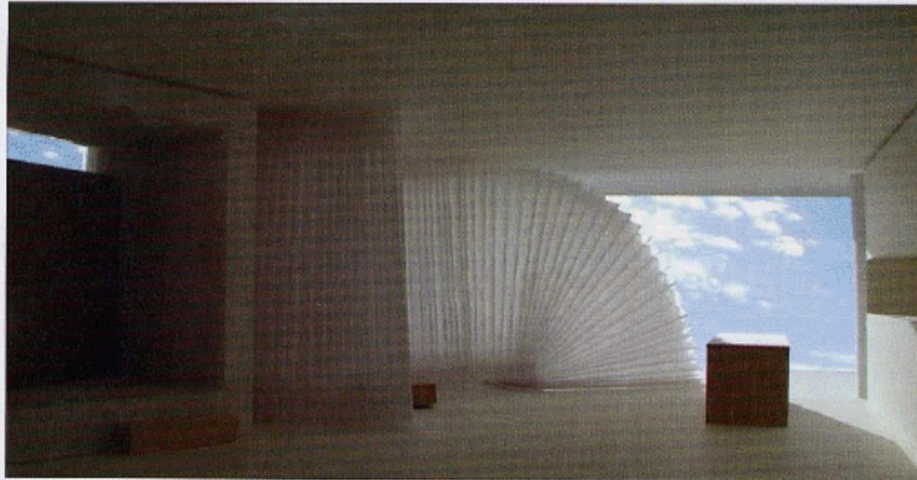
▲은상을 수상한 캐나다 건축가 제닌 애드리안(Jenine Adrian)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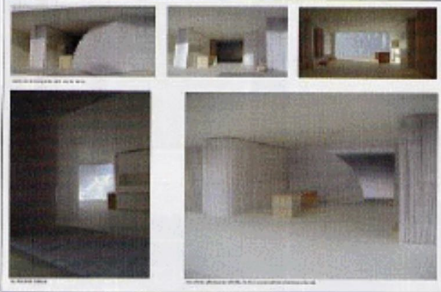


▲금상률 수상한 싱가포르 건축가 웨이 압 오이(Wei Yap Ooi)의 작품.

136_www.jutech.co.kr



금상률 수상한 일본형 인테리어인 '소프트하우스'집



로 내건 디지털화된 인테리어, 김추밀 키친, 크리에이티브 키즈룸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은 없었지만 포괄적인 제안으로 이해하였다.

남은 세 작품을 두 번째 금상률 받는 논점이 오래 계속되었다.

'동서양을 넘어서는 디자인'과 '디지털화된 인테리어, 김추밀 키친, 크리에이티브 키즈룸'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제안을 글과 다이어그램만으로 제안한 싱가포르에 웨이 압 오이(Wei Yap Ooi)의 제안은 인테리어디자인을 감각보다 이성으로 이해한 신선한 제안으로 뎀

디자이너와 세자바씨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디자인 공모에 디자인이 없는 것을 금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역시 보류되었다.

장치벽에 실비공간과 디지털스페이스를 장악하고 외부로 향한 활동공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쥘 사이에 그린 스페이스를 두고 이를 중폭도와 수직동선으로 겹쳐간 캐나다의 제닌 아드리안(Jenin Adrian)의 제안은 심사위원 모두의 지지를 얻었으나, 세자바선생이 독창적이라 볼 수 없다하여 은상에 머물렀다. 영국의 건축가 에디 덴(Addy Den)의 작품은 일본형 건축으로 제안된 기계화주거는 지식산업사회의 건축행식으로 평가되어 두 작품을 제치고 금상으로 선정되었다.

심사를 끝내고 작가들을 알아보니 311'의 중국형 주거인 대상은 칭화대학교수였으며, 소프트하우스는 캐나다 건축가였고, 기계화주거는 영국의 건축가였다. 이번 효예는 대상과 금상후보에 오른 다섯 작품을 실는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 수록되어있다. ㉠

<http://www.hanssemcompe.com>

<http://www.designcompe.com>